

'4연승' KIA, 4연패 · 충격패 후유증 씻어내고 본격 상승세

4위 안착...지난주 초와 분위기 반전

이번주 삼성 · 두산 6연전 체력적 고비

지난주 초와 확 달라졌다. 연패 및 충격패 분위기를 수습한 KIA 타이거즈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KIA는 지난 1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13-3 대승을 거뒀다.

지난 9일 KT전부터 4연승 행진. 어느새 4위에 안착했고 5위 LG와 승차도 1.5경기로 벌리는데 성공했다.

선발투수 인기영의 호투는 물론, 윤리상, 나지완, 최형우 등 중심타자들의 활약과 전날 처음으로 1군에 콜업된 포수 김민식의 5타점

맹활약이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지난주 초와 비교할 때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다.

KIA는 지난주 일정을 시작하던 6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직전 주말인 4일과 5일 경기를 내리 패하며 연패에 빠진 상태였기 때문.

무엇보다 내용이 좋지 않았다. 4일에는 에이스 양현종이 출격했지만 4%이닝 8실점으로 무너졌고 5일에는 9회초까지 6-1로 앞서던 경기를 9회말 6-7 역전을 허용하는 충격패를 당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7일과 8일, KT에 내리 패하며 어려움이 가중됐다. 위기였다.

하지만 9일 KT를 10-4로 꺾은 것을 시작으로 10일에는 키움을 상대로 연장 11회말 최원준의 끝내기 안타로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가 돌변했다.

기세를 몰아 11일에도 키움을 제압했다.

이때 그간 승운이 없던 외국인 에이스 애런 브룩스도 한 달 만에 승리(시즌 4승)를 추가했다.

이어 12일 경기가 우천취소된 가운데 시즌 첫 월요일 경기로 펼쳐진 13일에도 키움을 무너뜨렸다.

선발진의 부진, 부상자 명단에 오른 마무리 투수 문경찬 공백, 충격패 후유증 등도 말끔히 씻어냈다.

특히 상대가 강호 키움이었기에 그 효과가 컸다.

올 시즌 키움과 상대전적 역시 5승4패로 뒤집기에 성공했다.

다만 체력적인 면은 고민이다.



휴식 없이 바로 대구로 이동, 삼성 라이온즈와 원정 3연전에 나선다.

6위 삼성과 승차는 2.5경기로 순위를 쟁에서 중요한 맞대결이다. 주말에는 홈으로 돌아와 또 다른 강호 두산 베어스를 상대해야 하는 일정이다.

뉴스 1

5개월만 돌아오는 타이거 우즈, 통산 83번째 우승 정조준

내일부터 나흘간 메모리얼 토너먼트 출전

5개월 만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출전하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83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우즈는 오는 16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퓨어필드 빌리지 골프클럽(파72·7392야드)에서 열리는 메모리얼 토너먼트(총상금 930만달러)에 출전한다.

우즈가 PGA 투어에 마지막으로 출전한 것은 지난 2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다. 당시 컷 통과한 68명 중 최하위에 머물렀던 우즈는 이후 PGA 투어에 출전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재개된 5개 대회에도 우즈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랜 침묵 끝에 우즈가 마침내 돌아온다. 우즈는 개인 SNS를 통해 "다른 선수들과 경쟁하는 것이 그리웠다"며 자신의 출전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메모리얼 토너먼트는 '전설' 잭 니클라우스가 개최하는 대회다. 우즈는 역대 이 대회에서 5번 정상에 오르는 등 좋은 기억이 많다.

우즈는 지난해 10월 조조 챔피언십에서 우승, PGA 투어 통산 최다승(82승) 부문에서 샘 스니드(미국)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우즈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 스니드를 넘어 역대 PGA 투어 최다승 기록을 세우게 된다.

우즈가 메모리얼 토너먼트에 나선 것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로 대회들이 연기 및 취소되면서 올해 첫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8월6일 개막)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메이저 최다승 기록(니클라우스 18승)을 노리는 우즈(15승)로서는 메이저대회에 앞서 샷감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

오랜 공백에도 PGA 투어는 이번 대회 파워랭킹에서 우즈를 14위에 올려놨다. 우즈가 이 대회에서 통산 5번 우승을 차지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우즈는 1·2라운드에서 세계랭킹 1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전 세계 1위 브룩스 캠퍼(미국)와 같은 조에 편성됐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2007년 이 대회 정상에 섰던 최경주(50·SK텔레콤)를 비롯해 임성태(22), 안병훈(29), 강성훈(33), 김시우(25·이상 CJ대한통운) 등이 출전해 우승에 도전한다.

KBO, 신한은행과 퓨처스리그 스폰서십 체결

KBO리그 타이틀 스폰서 신한은행, 퓨처스리그 후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4일 신한은행과 KBO 퓨처스리그 스폰서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리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파트너십 활동을 KBO와 함께 펼쳐나갈 예정이다.

KBO는 잔여시즌 동안 퓨처스리그가 개최되는 각 구장을 통한 신한은행 SOL 홍보 활동을 하고 중계를 통해 브랜드를 노출할 예정이다. KBO와 신한은행은 이번 스폰서십 체결을 계기로 양사의 동반성장이라는 목표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KBO는 새로운 퓨처스리그 중계권 계약을 통해 올 시즌부터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스포카드 채널)에서 매주 3경기 이상을 중계

야구팬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퓨처스리그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생중계 누적 접속자 수가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야구장을 찾지 못하는 팬들의 관심이 퓨처스리그로 확대됐다.

KBO는 앞으로도 퓨처스리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 등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광주시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속도 건의

김창준 회장, 국회 방문해 도종환·이상헌 의원 등 접견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한 김창준 회장 등 지방체육회장들이 도종환 위원장 등과 법정 법안화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체육회 등 지방체육회가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국회를 방문했다.

시체육회는 13일 오후 김창준 회장을 비롯해 시도체육회장단 대표 7명(울산, 경기, 충남, 전북 등)

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위원장, 이상헌 위원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시도체육회장단 대표들은 접견 자리에서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당위성, 예산지원 근거 마련, 지방체육회장 선거 중앙선관위에 위탁 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의 필요성

에 대해 재차 강조하며 법 개정 속도를 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국회 문광위원회는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등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도종환 의원을 시작으로 이용, 안민석 의원이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이상헌 의원도 개정 법안을 충분히 검토 후 발의할 예정이다.

시체육회는 김창준 회장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공동 위원장이자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시도체육회와 공유하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창준 회장은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법 개정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개정이 원만하고 조속하게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드래곤즈 멀티플레이어 김한길 영입



전남드래곤즈가 FC서울과 계약해지한 측면 멀티플레이어 김한길을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

김한길(178cm, 65kg)은 빠른 발을 가진 다재다능한 측면 자원이자. 측면 수비와 측면 미드필더, 측면 공격까지 번갈아 맡을 정도로 사이드에서의 활약이 일품이며 스피드와 기술, 수비력까지 갖춘 선수로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선수이다.

김한길은 2017년 FC서울을 통해 프로에 입단하였으며, K리그 통산 39경기에 출장하여 1골 2도움을 기록중이다. 노란 유니폼을 입은 김한길은 "나에게도 변화가

필요했다. 전경준 감독께서 나를 원하셨고, 나 또한 전감독님의 전술에 매료되어 전남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전남의 기세가 좋다.

전남의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남드래곤즈는 김현욱, 임찬울, 율래에 이어 젊고 유능한 김한길의 합류로 다양한 전술 옵션을 가지게 되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중국, 오는 11월·12월 피겨스케이팅 대회 강행

빙상연맹 "선수 파견, 개최 여부 최종 확정될 결정"

중국인 오는 11월과 12월 2020-21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ISU는 14일(한국시간) "중국빙상경기연맹이 11월 6일-8일 충칭에서 ISU 피겨 그랑프리 대회를, 오는 12월 10일-13일 베이징에서 ISU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를 계획대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 시즌 피겨스케이팅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오는 8월 26일~29일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이던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1차대회는 취소됐다. 9월 2일부터 5일까지 슬로바키아에서 열기로 한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는 개최 장소를 라트비아, 개최 시기를 10월 중순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지 않으면 이 대회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도 9월 개최하기로 했던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4차 대회를 포기했다.

당초 중국 올림픽위원회도 코로나19 감염을 우려, 올해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대회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테스트이벤트를 겸하는 대회는 개최하기로 결정, 두 대회가 모두 열릴 전망이다.

12월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는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다. 또한 11월 피겨 그랑프리 대회는 테스트이벤트의 출전 포인트가 걸려 있는 대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한국 선수들의 국제 대회 출전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연맹 관계자는 "우선 코로나19로 대표 선발전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변하고 있다. 국제대회 파견 여부도 대회 개최 여부가 최종 확정된 뒤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NBA 휴스턴 스타' 웨스트브룩, 코로나19 확진

31일 리그 재개 앞둔 휴스턴 날벼락

미국프로농구(NBA) 스타플레이어 중 한명인 러셀 웨스트브룩(32·휴스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웨스트브룩은 14일(한국시간) 자신의 SNS계정에 "올랜도로 떠나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

현재 격리 중이지만 특별한 증상은 없다. 상태가 나아져 팀에 합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했다. 그러면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코로나19가 심각하다. 모두 마스크를 쓰자"고 덧붙였다.

NBA를 대표하는 가드인 웨스트브룩은 지난 2008년 올랜도 마시타에서 데뷔해 지난해 7월 트레이드를 통해 휴스턴 로키츠 유니폼을 입었다.

2017년 NBA 정규리그 MVP 영광을 안았으며 올스타에 9차례 선정된 바 있다. 올 시즌도 평

균 27.5득점, 8리바운드, 7어시스트로 활약을 이어갔다.

한편 휴스턴의 또 다른 에이스인 제임스 하든 역시 팀 훈련에 합류하지 못한 상태다. 일부 현지 언론들은 하든이 웨스트브룩처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NBA가 오는 31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2019-20시즌을 재개하는 가운데 휴스턴은 두 명의 기간선수인 웨스트브룩과 하든의 몸 상태가 최대 고민으로 떠올랐다.